

인터뷰

신임 변증남 교무처장

▶ 처장님께서 현재 구상하고 계시는 학사운영의 원칙은 어떠한 것입니까.

— 교무처가 맡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모든 학사 관계 업무의 담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사업무라는 것이 결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대관심사는 '좋은 학생을 어떻게 만드는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교무처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급진적인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도라는 것이 허점이 있게 마련이므로 현재의 것이 반드시 최상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새로운 것으로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이 실패했을 경우 그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변화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

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우수한 신입생 선발 문제와 연계하여 이를 위한 학부교육 강화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 우선, 우리 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좋은 성과들을 외부에 적극 홍보하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이러한 학교차원의 홍보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가 외부에 우리 원의 좋은 점들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학부 교육 강화 방안이라면 우선 다양한 커리큘럼의 제공을 들 수가 있습니다. 통합 이후 다양해진 교수진을 잘 활용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ABET평가(미국의 교육 평가위원회에서 실시)를 받아 볼 계획도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함으로써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올해 교무행정의 주요한 목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교양과정부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해

학사경고제도 일부 보완 검토중 고2에게 무시험자격 부여 고려

이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재정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지적했던 부분 - 급속한 변화로 인해 어떠한 잘못이 일어났을 경우 그 피해자는 학생이라는 사실 - 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학사경고제도에 대한 일부 보완의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어떠한 것입니까.

— 지금 그 문제에 대한 건의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은 한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이라도 다음에 성과가 좋다면 그것을 고려하여 이전의 경고를 말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것이 확정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발표될 것입니다.

▶ 학사과정 무시험전형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에게도 지원자격을 주자는 안이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과학고에 대한 고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학년에게 무시험 자격을 준다는 것이 개념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우수한 학생을 많이 뽑는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르면 올해

주십시오. — 우선 교양과정부를 현재의 자연과학부 소속에서 독립시켜 하나의 새로운 학부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 안은 3월 31일에 있는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의 예상대로라면 올해 8월부터 독립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양과정부는 신입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전공과정으로 넘어가는 일종의 터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새로운 과정에 대한 준비능력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 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 등 외국의 실정도 조사하여 참고로 삼고 있습니다.

▶ 대학원생의 교육·연구지도 차원에서 연구단지내 연구소와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 그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미 각 연구소로부터 계획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판건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 14면)

▶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담, 정리:임용식기자



"교무처 행정은 본질적으로 보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자칫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임 백은권 동연회장

편집자주

제 2대 동아리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된 백은권(90, 산업공학)군을 만나 앞으로의 사업계획과 동연의 역할에 대해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담:김중호 기자

▶ 올해 동연의 위상을 어떻게 세우실 예정입니까?

— 제2대 동연은 그저 동아리들에게 예산과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곳에서 탈피해서 동아리 하나 하나의 권익을 보장해 주고 동아리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당국과 각 동아리들을 연결해 주는 곳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각 동아리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내는 역할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분과건설입니다. 우리 원에는 대학에 58개의 동아리가 정식으로 동연에 등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내용적으로 결합해서 모두 8개 분과로 현재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음악분과의 경우 노래를 위주로 하는 동아리들과 악기를 위주로 다루는 동아리들이 한데 섞여

백은권 동연회장



있습니다. 앰프를 사용해야 하는 곳도 있고 전혀 필요치 않는 곳이 있어서 동연에서 음악분과에 앰프건에 관한 예산을 지원해 주었을 때 혜택을 받는 동아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사안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새로이 분과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분과 건설을 통해서 예산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집행뿐만 아니라 동연회장, 분과장, 동아리 대표, 동아리 구성원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의 질서도 잡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정한 지원금 배정의 기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첫번째로 공동체적 문화형성도도에 기여하는 행사에 1순위로 지원해 줄 것이고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는 단체에 2순위로, 또 동아리 행사를 통해 각 구성원 자신의 자기개발이 가능하다면 3순위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입니다.

그외에도 동아리 인원, 활동능력, 작년도 활동상황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입니다.

▶ 1대 동연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1대는 맨땅에서 시작했습니다. 동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학우대중들에게 충분히 공유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동연집행부의 역량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타 자치조직과도 연계활동을 하는데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 동아리방의 부족이 시급히 해결해야될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현재 12개의 동아리가 방이 없는 상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실험실 등을 지도교수님과 상의해서 방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원측에 요구만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합니다.

▶ 올해 동아리마다 새내기 모집이 저조하다고 들었는데요

— 이 현상은 유독 올해 두드러지는 것으로 압니다. 학교측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때 공부를 위주로 하라고 충고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신입생들도 생활이 익숙해지고 5월 동아리 문화제를 통해 동아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 자연히 이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또 다른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 동연에서는 생활문화운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교육은 먼저 인간으로서 올바르게 서는 것을 토대로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학생회 복지부, 총학생회 문화부와 연계해서 대대적으로 선전해 나갈 것이고 기간은 1년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문화개선행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서로가 공유할 수 있도록 방법상에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 우리 동아리들은 너무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있는것 같습니다. 동연은 물질지원만 해주는 곳이 아니라 동아리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체입니다. 동아리 구성원 모두가 여기에 책임져야하고 주도적으로 동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